

# 생사윤회 끊으려면 살생 말라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5>

### ▲원문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은,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를 모래나 흙으로 덮어 두고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구덩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쪽으로 오던 사람이 이 인연으로 죽게 되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죽는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을 위해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되고, 비인(非人, 모든 천인과 이슬라와 귀신들이 죽으면 이것은 중죄이기 때문에 참회할 수 없다.)를 죽이면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없다. (주: 사람이 대해서는 방편에 따른 죄를 얻지만, 비인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죽성이 죽으면 하죄(下

罪)로써 참회할 수 있다. (주: ‘하죄’의 하(下)는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른 여러 율장에 준거해 보면 이 죄는 ‘중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대해서는 방편에 따

## 오계상경-9

른 죄를 얻지만, 죽성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비인(非人)을 위해 만든 구덩이에 비인이 죽으면 중죄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고, (주: 비인은 모두 도의(道義)가 미약하므로 죽더라도 계체를 잃지 않고 다만 참회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 사람이나 죽성이 죽으면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 (주: 비인에 대해서는 방편에 따른 죄를 얻지만, 비인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만약 죽성을 위해 만든 구덩이에 죽성이 죽으면 이는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으며, (주: ‘집승은 모든 하늘들과 귀신과 비교하면 더욱 하열하다. 그러므로 죽인 사람들의 죄는 작고 가볍다.) 만약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비인이 떨어져 죽으면 모두 하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특정한 한 가지

## 총이나 밧 사용해 죽이면 무거운 죄 실수하여 죽게한 죄 참회할 수 있어

일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구덩이를 만들어 두었는데 지나가다가 총이나 밧이 떨어져 죽었음을 경유,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비인이 죽으면 중죄의 죄, 죽성이 죽으면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 전혀 죽은 것이 없으면 세 가지 방편에 따라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강의  
여기에서는 ‘연기도 없는 불구

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신과 용과 귀신을 죽인 것에 대하여는 중죄의 죄라 하고, 짐승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경유 하급 죄라 하고, 게다가 계체(戒體)를 잃지도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가? 계를 받은 이에게 생령처럼 소중한 계체를 잃게 되는 경우는 중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五錢)이 상을 훔치거나, 사된 음행을 하거나, 크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근본 네 가지 중계를 범했을 때이다. 이 네 가지 중계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면 결코 작법

(作法)으로 참회할 수 없다. 비인이나 죽성 등을 죽였을 경우 죄의 본질은 비록 중대한 것이나 무작죄(無作罪)에 위배되는 것은 오히려 작고 가볍다. 본문에서 말하는 ‘중급 또는 하급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는 것은 무작죄에 위배되는 것을 참회하여 없애고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한다는 것이지, 죄의 본질까지 없애진다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목숨이라도 죽이게 되면 반드시 한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일부러 죽이면 자신도 똑같은 값을 받게 되며, 잘못하여 죽게 되면 역시 잘못된 값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능엄경>에 이른바, “그의 몸과 목숨을 죽이거나 혹은 그의 고기를 먹으면 미진겁을 지나도록 서로 먹고 서로 죽이는 것이 마치 구르는 바퀴가 번갈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계를 잘 받아 지켜 범하지 않으면 윤회를 끊을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다시 범하게 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다시 범하지 않는다면 또한 삼악도에 떨어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급 또는 하급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살생의 죄가 이처럼 무겁고 두려운 것인데, 수행하여 열반을 증득하거나, 열반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업을 갚는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해인총림 윤희정)

# “사대육신 흠어져도 참된마음 변함없어”

오늘은 승림사 주지 소임을 맡아 불사를 시작한 지 꼭 13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불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군소리들이 많은데, 승림사 2차 불사 회향법회가 열리는 만큼 ‘불사의 공덕’에 대해 법문을 할까 합니다. 처음 이곳 산사에 왔을 때 고찰의 정적만 있을 뿐 낡은 법당과 요사에 비가 새는 등 폐허나 다름이 없었지요.

절에 온 다음날부터 손을 걸어 불이고 흙을 이겨 담장과 법당의 지붕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 우후부 보수, 법당 내부 수리, 종각 건립, 요사 안신당 건립, 산신각 건립, 축대보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승림사에 관심을 갖고 불사에 동참해 준 전 교 각지의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사를 하는 것은 중생들의 보리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 공간일 뿐 아니라 중생들의 불행공부를 돕는 장소입니다. 도량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부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공덕의 진리, 깨달음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불사의 숨은 뜻은 대종스님과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 하나된 마음이 원력으로 승화되고 실천하는 속에 비로소 복덕이 만들어지는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문서불사, 인간불사와 함께 부처님을 조성하고 탑을 세우는 불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대의 불자들은 불사를 위해 신도들이 모여 공불계를 조직했습니다. 그 만큼 심시일반의 정성을 결사한 것이요, 이곳 우후부에 걸려 있는 ‘공불계’의 내용을 보면, 1737년 임치번 불자가 공불계를 조직하여 1백여 명의 계원과 함께 약간의 곡식을 내어 불랑담(佛糧盆)을 마련, 몇 년간 직접 경작했다고 합니다. 그 수확물로 건축불사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사가 끝나면서 불랑담을 절에 보시했는데, 이 땅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부처님 앞에 늘 향이 사뭇할 수 있도록 발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불사입니까. 그 토지는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요.

부처님 말씀에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능히 중생심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한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이익은 다할 때가 없으리라. 만일 향 하나를 보시 하더라도 마땅히 이런 뜻을 내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사는 후대의 중생들을 위해 회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덕 중에 서도 최상의 공덕이 남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는 중생들을 구제 하겠다는 자비정신의 표현입니다. 우주의 나이로 보면 사람은 이 지구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집착과 욕심, 성냄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할나의 생을 사는 동안 잠깐 이용 할 뿐입니다.

가깝게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몸은 흙(地)·물(水)·뜨거움(火)·바람(風)이 잠깐 인연작용으로 뭉쳐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나의 마음은 흠어져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지요. 모든 재는 덕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참 재산을 많이 비축하는 불자가 되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buddhapha.com)

## 법외중계

### 익산승림사

(2000년 4월 11일)



지강스님  
(승림사 주지)

## 조그마한 보시 하더라도

## 일체중생 위해 마음내면

## 한량없는 이익 얻게 돼요

# 가톨릭 나라에 1880년 불교 첫선

오스트리아 불교는 1983년에서야 종교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한데다, 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잠깐 불교에 대한 관심이 1·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풀 꺾였던 탓이다. 오스트리아 불교는 유럽의 식민지 정책이 극에 달했던 1880년대를 전후로 시작되었는데, 제1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주로 문학과 철학 분야에 활동하던 학자들이 동양의 지혜를 인식했던 단계로 볼 수 있다. 제2기는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1888년부터 1916년까지 경건과 같은 불교문헌을 수집하는 운동이 펼쳐졌는데, 당시 인문학계 학자들이 이 운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1918년부터 1924년까지는 나치들이 의해서 불교가 금지되었다. 물론 1918년에 벌써 불교에 강한 관심을 보였던 독일의 상황과는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야 겨우 불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1948년 오프레찰(Oprechal)·킬(H. Klar)·스테파노프스키

## 세계의 불교학 <15> 오스트리아 ①

(J.Stapanovsky) 박사들이 모여 ‘불교 단체 빈(Buddhische Gesellschaft Wien)’을 설립한 것에서, 그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인구 백만 도시 빈의 ‘종교단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약 12명의 시민들이 이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들 회원들은 강의나 토론을 통해 오프레찰과 같은 학자들은 만날 수 있었고, 불교 교리와 신학을 접할 수 있었다. 이후 이젠버그(Exenberge) 박사와 페트라스위취(Petrassowitsch) 교수가 이 단체에 합류했다. 그들은 학문, 즉 이론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오래된 불리어 경전에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불리어 강자가 생겼고 달케(Dahke)의 장부와 증부의 불리어본 번역을 지원했다. 당시 불교단체들은 회원들이 서로 책을 바꾸어 읽는 것을 적극 권장했는데, 단체 내 소규모의 대서점들을

만들기도 했다. 불리어경전협회(PTS)의 영역본 불리어 경전은 이때 오스트리아 학자와 불자들에게 중요한 서적이 되었다. 이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견과 서적을 교환했는데, 전쟁 후에는 출판의

## 학자들 빨리어 경전 가르침에 매료 불교 1983년 공식종교로 인정 받아

자유와 서신 교환이 가능함에 따라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나 1941년 게슈타포(비밀경찰)에 의해 불교단체의 활동이 금지되고, 스타인케(Steinke)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체포되고, 1942년 불서 출간이 금지되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불교가 사라지는 듯했다. 1950년대 세계대전이 끝나자 1960년대 중반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예전의 불교단체들이



티베트사원을 찾은 오스트리아 불교학자들.

변화 속에서 오스트리아 불교학계는 1990년 초까지 티베트 불교를 적극 수용하고 티베트·한문경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오스트리아 불교는 1983년 2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불교가 종교로서 법적 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오스트리아의 중심 종교인 가톨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오스트리아 불교계는 빈을 중심으로 하고 확대와 조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ha.com)

##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명준비에 자진 수양생에게 평생 최고의 길진 선물 취하기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0가지, 모두 360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조작용,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佛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을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  
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신문 구독신청 · 광고제재 · 기사제보”를 위하여 전국의 지사를 안내합니다.

지사명	주소	전화번호	FAX
본사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02)737-8881(대) / 737-0090(직)	02)737-0697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91)643-5599/019)366-1315	겸용
고성지국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옥천사내 정린암	(0556)672-0078/011-836-0078	(0556)672-1308
광주지사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한마음선원내	062)375-9986/016-602-7544	062)371-7544
대구지사	대구시 동구 용계동 1013-1 새마을금고 2층	053)983-9222/011-813-3679	053)983-9223
목포지국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44-3 목포불교대학 4층내	0631)279-3788/019-644-0701	0631)279-0577
밀양지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27)353-1196/017-650-1196	0527)356-1346
부산지사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 건국사빌딩 6층	051)634-5114	051)634-5188
안산지국	경기 안산시 원곡동 838 은하연립 108동 202호	0345)494-8859/011-9912-8859	
영주지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42-17	(0573)674-1199/011-546-3788	(0573)673-8836
울산지사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693-2 3층	051)752-0851(자책) / 052)257-7737	052)244-0182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신안동 현대2차아파트 205동 1202호	0591)743-5020/016-585-2120	
제주지사	제주시 연동 320-44	016)695-6885	
충청지사	대전시 서구 변동 254-105 철분사내	042)527-0539/011-9846-2115	겸용
일본지사	日本 大阪市 生野區 鶴橋 2丁目 11-4 現代佛敎新聞社 日本國 支社 경기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5-16	0347-766-0242/011-265-5118	